

어린이 당뇨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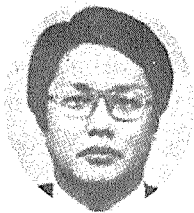
소아들의 당뇨병증세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되어 췌장의 기능이 몹시 손상되면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옮겨져서야 진단이 되는 수가 있다. 소위 케톤산증이 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선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 정기적 당뇨병검사에 의해 예방이 가능할 수도 있다.

기에 조기발견해야 할 필요성과 그 방법을 설명함은 매우 의의있는 일이라 여겨 몇 가지로 나누어 풀어가 본다.

1. 소아당뇨병이라고 모두 같은 것이 아니다

소아당뇨병이란 소아 즉 15세이전에 생기는 당뇨병을 이르는 것으로 미국의 베넷트박사에 의하면 모든 당뇨병의 약 5%가 15세이전에 발병한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의미있는 부분을 차지하는 소아 당뇨병은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것처럼 인슐린의존형(제1형) 당뇨병만이 오는 것은 아니다. 즉, 소아들은 대개 다음의

초기의 증상만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어린이당뇨병 어린이 당뇨병 조기발견, 치료의 중요성



유 형 준

경제수준의 발달, 가족계획에 의한 출산의 수적 제한 등에 따라 소아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날로 더 해지고 있다.

이처럼 커가는 관심속에 평생관리를 해가야하는 당뇨병이 소아에서 생긴다는 것에 대한 일반의 의학상식 또한 커지고 있다. 차제에 꾸준한 노력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당뇨병을 소아

세가지 형태의 당뇨병이 온다.

첫째로, 과거에 약년형당뇨병이라고 하던 것으로 요새는 인슐린의존형이라 하여 인슐린주사를 필요로한다. 이 형태의 당뇨병이 모든 소아당뇨병의 75%를 차지한다. 그 발병이 대개 급하고 심하며 모든 증상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1~2년이 지나야 진단이 될 정도로 느리게 진행되는 수도 있다.

둘째로, 과거에 성인형 당뇨병이라고 하던 제2형당뇨병이 와서 인슐린이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다. 즉, 소아에서

어린이 당뇨병

당뇨병이 생겼다고 모두 인슐린의존형은 아닌 것이다.

세째로, 드물긴 하지만 태어난지 첫 1개월 이내에 일과성으로 당뇨병이 지나가는 것으로 뒤에도 추구검사를 해가며 관찰을 하면 전연 문제가 없다.

이와같이, 소아에서 오는 당뇨병도 어느 형태에 속하는가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또한 초기에는 그 증상만으로 판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소아기에도 당뇨병에 대한 정기적 검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조기 발견이란 어렵다.

2. 어느 연령에나 다 나타난다.

그림1에서 보듯이 당뇨병은 어느 나이에서나 볼 수 있다.

그릇 알고 있듯이 나이들어서나 당뇨병에 걸린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인 것이다.

이처럼 소아기의 아무때나 오지만 가족중에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률이 다소 높다(표1).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둘 것은 제1형은 제2형보다 유전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쉽게 생각하기에는 인슐린의존형이 유전이 강할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표 1. 가족중에 당뇨병이 있을 때에 19세 미만에서 당뇨병이 발병할 확률

관계	당뇨병이 없는 가족에 대한 비율
부모	5배
형제	15배
자식	22배

부연하여 설명하면, 소아기에도 당뇨병은 어느 때나 의미있게 발병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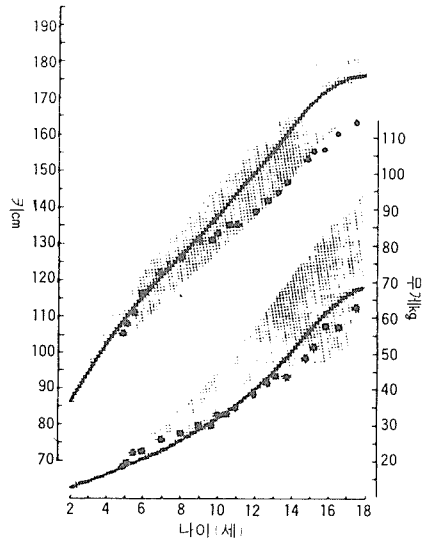


그림 1. 당뇨병으로 병원에 처음 온 나이(조슬린클리닉)

3. 모를수록 늦을수록 안좋다

1) 모르고 있다가 당뇨병성케톤산증 같은 급박한 합병증이 온다.

소아들의 당뇨병증세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되어 췌장의 기능이 몹시 손상되면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옮겨져서야 진단이 되는 수가 있다. 소위 케톤산증이 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어린이 당뇨병

선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 정기적 당뇨병검사에 의해 예방이 가능할 수도 있다.

2) 늦을수록 발육이 늦다

그림 2에서 보듯이 그 관리의 시작이 늦고 불충분하면 신장이나 체중이 정상대로 되지 않는다.

3)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필자의 경험이다, 수년전 무의촌 파견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동네에 나이 30이 되어서도 장가를 못들고 어릴적부터 밤마다 오줌을 싸서 바보 취급을 받던 총각이 어스름 저녁에 보건소에 찾아왔다. 다름아닌 소아당뇨병에 의한 야뇨증이였다. 그 당시에 그 총각의 안도와 후회로 울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다. 바로 그 총각은 여러 사정으로 그 흔한 요당 검사를 안해보았던 것이다. 검사를 해보

주변에는 정기적 검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음이 현실이다.

4. 조기발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조기 발견을 할 수 있을까.

첫번째로 고려되어야할 것은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검사를 해두는게 좋다. 가족 중에 당뇨병이 있는 경우의 소아들은 스크리닝을 해봄이 좋다. 특히 쌍둥이로서 한 쪽이 당뇨병이 있으면 반드시 해본다. 다음으로는 야뇨증, 다뇨, 다음, 다식, 성장부진등의 증상이 있을 때에도 해보는게 좋다. 또한 두드러지게 똥똥한 소아들도 한번쯤은 관심을 갖고 검진해보는게 좋다.

조기 검진 방법은 요당검사보다는 혈당검사를 하는게 좋다. 그러나 더욱 확실한 검사시행법은 경구당부하검사이다.

체중 1kg당 1.75g의 포도당(최대는 75g)을 먹기 전·후의 혈당을 측정하여 당뇨병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그 자세한 내용은 본 설명의 범위가 아니라 다음으로 미룬다.

이상으로 소아에서의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해야하는 중요성들을 쉽게 풀어 기술하였다.

점차 소아들의 위치는 한 사회의 발전과 영속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점차 인식되고 있다. 각 가정의 정기검진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홍보, 교육에 의한 바른 인도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국립의료원 당뇨병교실·의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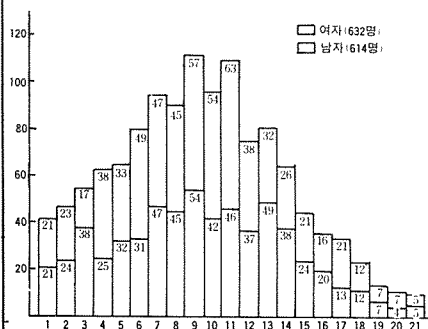


그림 2. 키와 몸무게의 성장지연

아래곡선이 소아 당뇨병의 곡선

지도 않고 오줌싸개로 취급을 받았던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일 같지만 우리